

# 보험사 새 화두 '여성 특화'... 유방암에 정신건강까지 살펴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55.6%  
의료 지출·보험 가입률도 늘어

보험업계 특화상품 개발 가속화  
연령대별 보장수요 세분화 필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보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보장 수요가 변화하면서 여성 특화 보험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보험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질병, 상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보험 수요도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여성 특화 건강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1년 49.4%에서 2023년 55.6%로 6.2%포인트(p) 증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증가율 측면에서는 남성을 앞질렀다.

성향 측면에서도 여성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강한 위험회피 성향 등의 이유로 여성의 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성 특화 보험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유토이미지

로 높아 여성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 김성균 연구원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여성의 보험 가입률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여성 특화 보험을 판매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인과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여성 특화 건강보험상품이 출시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여성의 보험소비 경향이 남성보다 강하다는 측면에서 여성전용 CI보험이 출시

된 바 있다.

최근 보험업계는 여성의 보장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 특화 보험사 선두주자인 한화손해 보험은 여성 건강보험을 통해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 산후우울 증 치료비 특약 등의 여성 특화 특약과 가임력 보존서비스, 난소나이 측정(Anti-Mullerian Hormone·AMH) 검사 서비스 등의 여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여성 전용 운전자보험을 선보이면서 여성 특화 상품의 카테고리도 확장했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상해 담보는 그대로 보장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 운전자를 위한 세부

보장을 담았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는 여성에 특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과 회사의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여성의 보험 가입 수요와 상품 판매량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담보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아울러 여성의 연령대별 보장 수요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과거에도 여성을 위한 특화 보험상품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판매됐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주담보 중심의 여성 특화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보장 담보 및 가격 측면에서 상품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령대에 따라 주요 보장 수요가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연령대별로 보장 수요를 세분화해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면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카드 News

KB국민카드

자기계발·편의 업종  
월 최대 1.5만원 할인

KB국민카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을 위한 특화 상품을 공개했다.

◆ 자기계발 영역서 할인

KB국민카드는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월 실적 20만원을 충족하면 자기계발 및 생활편의 업종에서 월 최대 1만5000원을 할인한다. ▲ 외국어학원·서점 업종 ▲ 여학시험 ▲ 교통 ▲ 이동통신 등이다.

발급 대상은 전역 후 3년 이내 또는 만 34세 이하의 제대 군인이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공공데이터 활용해 병역정보를 확인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KB페이 혹은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응모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KB페이로 2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 100만원 캐시백 ▲ 프라다 트라이앵글 로고 카드지갑 ▲ 신세계 모바일 3만원 ▲ CU 모바일 1만원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 저축은행 '예담대' 잔액 뚝... 은행권으로 대거 이탈

예담대 잔액, 전년대비 25% ↓  
은행권 수신 경쟁력 강화 영향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800억원대로 줄었다.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경쟁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예담대는 연체 위험이 낮은 효자상품 노릇을 해왔다. 저축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이 취급한 예담대 취급 잔액은 839억6500만원이다. 전년 동기(1112억8660만원) 대비 24.94%나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30억원 가까이 줄었다.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예담대는 900억~1500억원 미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 800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예담대란 미리 가입했던 예적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통상 예적금 상품에 1~2%포인트(p)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잔액이 줄면서 800억원대로 떨어졌다. /뉴스1

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차주는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현금을 담보 잡는 만큼 연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최근에는 공모주 청약 등에

활용되는 추세다.

예담대는 저축은행의 하반기 경영전략에 꼭 맞는 대출상품인 만큼 수요 감소가 겁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하반기 돌파구로 담보대출을 꼽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때 저축은행 예담대 취급액은 3700억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사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와 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자금을 내주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가치가 변동될 우려도 존재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담대가 주 수입원이 될 수 없지만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 가운데 차주와 기관 모두 부담이 없는 유일한 상품이다"라며 "수요가 감소한 만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예담대가 쪼그라든 배경에는 은행권의 수신 경쟁력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은행권의 정기예금(1년물)금리 상단은 연 3.9%다. 저축은행권 대비 0.1%p 낮은 수준이다. 이어 적금금리 상단은 연 6%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똑같다.

실제로 지난 5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3조8877억원이다. 3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관측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대거 이탈하면서 예담대 잔액이 감소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은행을 중심으로 예담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신한카드 본사 전경. /신한카드

신한카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편의성개선 공로 인정

신한카드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사회적 비용 감소 기여

신한카드는 2024년 디지털정부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은 플랫폼 혁신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한다. 신한카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편의성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1년 공공 마이데이터 시작 단계부터 데이터 활용을 선도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카드발급 및 대출 자동심사 업무 프로세스에 활용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 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환경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smahn1@

#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분양 시작

대우건설, 내일 건본주택 개관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단지

대우건설은 오는 12일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건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6구역을 재

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3.3㎡당 평균분양가는 3507만원이며, 입주하는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225가구 ▲59㎡B 52가

구 ▲59㎡C 70가구 ▲59㎡D 23가구 ▲84㎡A 45가구 ▲84㎡B 46가구 ▲84㎡C 51가구 ▲84㎡D 206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 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지하철 1

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에서 귀한 신축 아파트이자 '푸르지오' 브랜드 대단지라는 상징성을 갖춘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건본주택은 청량리역 인근인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김정산 기자